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대학 PR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대학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최근 국내 대학들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유학생 간 전략적 PR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유학생 관계를 이루는 여섯 가지 구성요인들 중, 특히 신뢰, 헌신, 만족, 그리고 공존적 관계성이 수학중인 대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 대한 태도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재방문 의도와 긍정적 구전 의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환경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대학 PR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KEYWORDS 조직-공중 관계성, 공공외교, 대학 PR, 국제화, 태도, 행동의도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B-832, Soojung Bldg.,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136-742.
hmlee@sungshin.ac.kr, 82-2-920-7812.

연구목적

최근 국내 대학들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1995년에 1,983명 수준에서 불과 10년만인 2005년 22,526명으로 10배가 넘게 늘어났으며, 2008년 63,952명 그리고 2010년 83,842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Cho & Lee, 2010;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8). 이 같은 현상은 경제 발전 및 한류열풍 확산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tudy Korea Project’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Park, 2010). ‘Study Korea Project’는 유학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교육수지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교육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시작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외국인 학생 유치/홍보 활동 그리고 유학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 등의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실행 중에 있다(Kim, 2012).

이렇게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대학들이 PR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중의 생태학적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Kim & Lee, 2011). 즉, 대학의 PR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세부 공중인 재학생 또는 잠재적 입학생의 특성과 범주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국

내 학생들에게로만 한정되었던 PR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공중이 이제는 외국인 학생들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공중을 위한 PR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 PR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Kim, 2007).

또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대학 재정확충의 대안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Kim et al., 2010).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Kim & Lee, 2012). 이러한 현실은 특히 PR의 측면에서 대학조직과 외국인 유학생 간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형성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관심을 경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PR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유학생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학-유학생 관계를 개념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형성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 형성은 그 본질적 특성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공외교란 정부 조직과 해외 공중들 간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 여론의 긍정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통칭하는 개념이다(Cull, 2008; Gilboa, 2008; Signitzer & Wamser, 2006). 과거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국력(hard power)에 의존했던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는 문화나 국가 브랜드 등의 연성국력(soft power)을 이용하여 해외 공중들의 자연스러운 관심 유도와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꾀한다(Nye, 2008; Yi, 2014). 따라서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문화적 교류가 필수적이며, 관광, 스포츠,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공외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실행된다(Yun, 2012; Shin, 2013).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문화적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대표적 전략 중 하나로 외국 학생들에게 자국의 언어, 문화, 사상, 가치관 등을 가르치고, 그 결과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den, 2009; Lee,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발생하는 관계와 소속 대학 조직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로 전이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 하에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유학생 관계가 대학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PR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대학-유학생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학-유학생의 관계가 소속 대학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를 넘어서 국가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규명함

으로써 국제화시대 대학 PR의 가치와 의의를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론적 배경

대학-유학생 관계: 조직-공중 관계성(OPR) 이론의 적용

조직-공중 관계성(OPR)은 여타 학문과 구분되는 PR 고유의 개념이자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Kim & Yang, 2014). 조직-공중 관계성은 조직과 공중 사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결과물이라 정의될 수 있다(Bruning & Ledingham, 1999). 또한 조직-공중 관계성은 조직과 공중 간의 상호작용, 교환, 연결 등의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조직과 핵심 공중 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득을 제공하고 상호 호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Broom, Casey, & Ritchey, 2000; Ledingham & Bruning, 1998). PR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과 공중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있다고 할 때, 조직-공중 관계성은 PR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자 효과 측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공중 관계성이 전략적으로 고려될 때, 조직은 핵심 공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쌍방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 유지할 수 있게 된다(Huang, 2001).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공중 관계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 및 세부 차원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직-공중 관계성의 개념 정립과 이론화에 큰 기여를 한 레딩햄과 브루닝(Ledingham & Bruning, 1998)은 개방성, 신뢰, 관여, 헌신, 투자 등을 조직-공중 관계성의 주요 요인들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전문적 관계성, 개인적 관계성,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성이 조직-공중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Bruning & Ledingham, 1999). 한편, 후양(Huang, 2001)은 신뢰, 상호통제, 헌신, 만족이 조직-공중 관계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조직-공중 관계성 관련 논문들 가운데 하나인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의 연구에서는 후양(Huang, 2001)이 제시한 4가지 구성 요인들에 교환적 관계성과 공존적 관계성을 추가하여 총 6가지 하위 요인들을 조직-공중 관계성의 주요 변인들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공중 관계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공중 관계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PR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Kim & Yang, 2014).

대학 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중들과 펼치는 PR 활동 또한 조직-공중 관계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학 PR을 단순히 대외 이미지 조성 및 평판 관리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학 조직이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교수,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내·

외부 공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 전략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Choi & Kim, 2007; Moon & Rhee,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학생 인구의 증가는 대학 PR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공중의 등장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Lee & Han, 2013). 이에 발맞추어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점차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화 적응 또는 대학생활 적응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Lee, 2012). 유학생들은 주로 한류를 통해 촉발된 관심, 전문적 지식 추구, 자아실현, 그리고 취업 등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유학을 선택하지만, 언어적 문제, 재정적 문제, 그리고 외로움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Park, Huang, & Jung, 2010).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불안, 우울증, 과음 등 여러 가지 병리 현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Kim, 2009; Kyung & Jang, 2010; Lin & Kim, 2011). 이수범(Lee, 2000)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유학생들이 상이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각종 문제들을 극복하고 현지 생활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학생들이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체류 중인 국가의 대중 매체를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문화적응이 훨씬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다 (Jun & Park, 2000; Lee & Kim, 2009).

최근에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 요인과 긍정적인 결과 도출에 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박혜숙(Park, 2010)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이 질이 소속 대학에 대한 일체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유학생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학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지훈과 이민경(Kim & Lee, 2011)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통해 유학생들이 대학 조직에 일체감을 느낄수록 성공적인 유학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귀경·홍성현·문석환(Jang, Hong, & Moon, 2010)의 연구는 미시적인 단계에서 유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그리고 다른 동료 학생들과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인간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서비스품질은 향후 유학에 대한 추천 및 구전 의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Lee & Han, 2013).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공중 관계성의 차원에서 대학과 유학생 간 소통과 관계정립을 조망한 연구가 없

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공중 관계성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의 형성, 유지, 그리고 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대학-유학생 관계가 지니는 함의를 특히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선택해서 유학 오게 된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속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터전인 대학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직이 될 것이며, 그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서 느끼는 관계성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결과물이자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대학-유학생 관계의 공공외교적 의의

최근 공공외교를 PR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과 핵심 공중 간 소통을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PR, 그리고 국가와 해외 공중 간 직접적인 교류와 이해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공공외교 사이에 개념적, 기능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An, 2011). 르탱(L'Etang, 1996)은 PR과 공공외교 모두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그니처와 콤스(Signitzer & Coombs, 1992)는 공공외교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국가와 해외 공중 간 상호이해와 합의를 도모

한다는 측면에서 PR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 및 발전과 이론적, 실무적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형민과 전종우(Lee & Jun, 2013)는 조직-공중 관계성 이론을 공공외교의 상황에 적용하여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해외 주재 대사관과 현지 공중들 간 형성되는 관계를 PR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조직-공중 관계성 척도를 이용하여 공공외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간 형성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공공외교와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된다. 한국의 조직과 다른 국가의 공중들이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Lee, 2012). 다른 환경, 상이한 문화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소속 대학과 형성하는 관계와 애착은 그들이 유학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 대한 호감과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감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ll, 2008; Nisbet, Nisbet, Scheufele, & Shanahan, 2004). 중국도 세계 각국에 공자아카데미를 설치하여 교육 교류를 통해 공공외교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Lee, 2012). 유학이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두 국가를 연결하는 문화 사절단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Sung, 2013).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Ha, 2008). 또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다른 국가에서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옹호하는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Ha, 2008; Lee, 2012).

그러나 유학의 경험이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학생들이 우울증, 향수병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yung & Jang, 2010; Lim, 2009).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Lee, 2012).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41%의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반한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문화적응의 어려움, 차별 대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oo,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유학생 관계를 조직-공중 관계성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학문적 시도는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학-유학생 관계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정

신적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속 대학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럽다면 유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유학 경험이 긍정적인 공공외교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반면, 소속 대학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유학생들의 적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유학 경험은 반한감정의 배양 등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유학생 관계와 대학에 대한 태도 형성

조직-공중 관계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PR 연구자들은 필연적으로 조직-공중 관계성이 야기하는 현상들에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조직-공중 관계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속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졌던 연구 테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Kim & Yang, 2014).

특히, 기연정과 혼(Ki & Hon, 2007)의 연구는 조직-공중 관계성의 잠재적 후행변수들 가운데 하나로 조직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다. 조직-공중 관계성을 어떠한 조직과 맺은 관계에 대하여 공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각하는 인식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관계 지각은 조직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기진술방법(self-reporting method)을 통해 응

답자들이 본인과 특정 조직 간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함으로써 조직-공중 관계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공중 관계성은 사실상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조직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계에 대한 지각은 그 대상을 평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Agarwal & Malhotra, 2005; Eagly & Chaiken, 1998; Malhotra, 2005).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조직-공중 관계성과 조직에 대한 태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기연정과 혼(Ki & Hon, 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지각하는 조직-공중 관계성이 그들이 대학에 대해서 형성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조직-공중 관계성을 구성하는 6가지 세부 차원들 중 특히 만족과 상호통제성이 태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형민과 전종우(Lee & Jun, 2013)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대해 인식하는 조직-공중 관계성 가운데 특히 만족과 공존적 관계성 요인이 대사관에 대해 갖는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인식하는 조직-공중 관계성과 소속 대학에 형성하는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유학생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그

들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 연구 가설 1: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인식하는 조직-공중 관계성은 그들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대학에 대한 태도가 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학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소속 대학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이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속 대학은 물리적, 심리적 차원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속 대학은 그 어떤 조직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Lee, 2012).

한편,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전통적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외교는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기업, 심지어는 개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통해 해외 공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An, 2011; Kim, 2013; Sung, 2013).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국 대학에 유치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러한 공공외교의 기본적인

철학과 일맥상통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에 재건부대를 파병하는 배경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군부대와 현지인들 간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공공외교의 성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깔려 있다(Yun, 2012).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한국 대학생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조직-공중 관계성에 분석적 초점을 맞춘 이형민과 전중우(Lee & Jun, 2013)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태도로 연결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들이 소속 대학에 형성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로 전이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안하였다.

- 연구 가설 2: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느끼는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태도가 국가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변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Ajzen, 1991; Ajzen & Fishbein, 2005).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에 따라 개인이 그 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행동의도가 결정되며, 미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의도는 실제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강민정과 양성운(Kang & Yang, 2010)의 연구는 비영리단체와 후원자들 간 형성되는 조직-공중 관계성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후원자들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태도가 조직에 대한 향후 후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이끌어 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조직-공중 관계성의 결과로 형성된 태도가 행동의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을 PR의 상황에 적용시켜 도출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연정과 혼(Ki & Hon, 2007)의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조직-공중 관계성, 태도, 행동의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조직-공중 관계성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대한 태도는 조직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적 매커니즘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이형민과 진종우(Lee & Jun, 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며, 미국에 대한 태도는 미국에 대한 여행 의도, 유학 의도, 친구 만들기 의도 등 긍정적인 공공외교 관련 행동의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소속 대학 간의 관계를 조직-공중 관계성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개념화하고, 이러한 대학-유학생 간 관계가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외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전략적인 결과물이 어떠한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호의적 태도, 그리고 이익이 되는 행동의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유학생 관계가 국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도출된 연구 가설들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형성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태도가 그들의 대한민국 관련 행동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도를, 재방문 의도와 자국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구전 의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다. 대학-유학생 관계로부터 발전된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자국에 돌아간 후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구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대학-유학생 관계

성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연구 가설 3: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대한민국으로의 재방문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 연구 가설 4: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자국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구전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표본 수집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인들인 대학-유학생 관계성,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행동의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편의표집 방법으로 모집하였고 총 24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회수된 설문지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10부를 제외하고 총 230명의 설문응답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반영된 표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153명(64.8%), 남학생이 77명(35.2%)이었다. 설문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1.5(SD = 1.42)세였고, 교환 학생의 신분으로 유학 온 학생

들이 95%의 비율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8.2개월이었다.

통계 방법 및 연구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들을 통해 예측된 핵심 변인들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의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AMOS 22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인 측정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실증적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조직-공중 관계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의 조직-공중 관계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은 조직-공중 관계성을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 만족, 공존적 관계성, 교환적 관계성의 여섯 가지의 세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신뢰 11문항, 상호통제성 8문항, 헌신 8문항, 만족 8문항, 공존적 관계성 7문항, 그리고 교환적 관계성 4문항, 총 46개의 문항을 통해 각각의 차원에 대하여 설문응답자가 느끼는 조직-공중 관계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수정만을 기하고 원형대로 사용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설문응답자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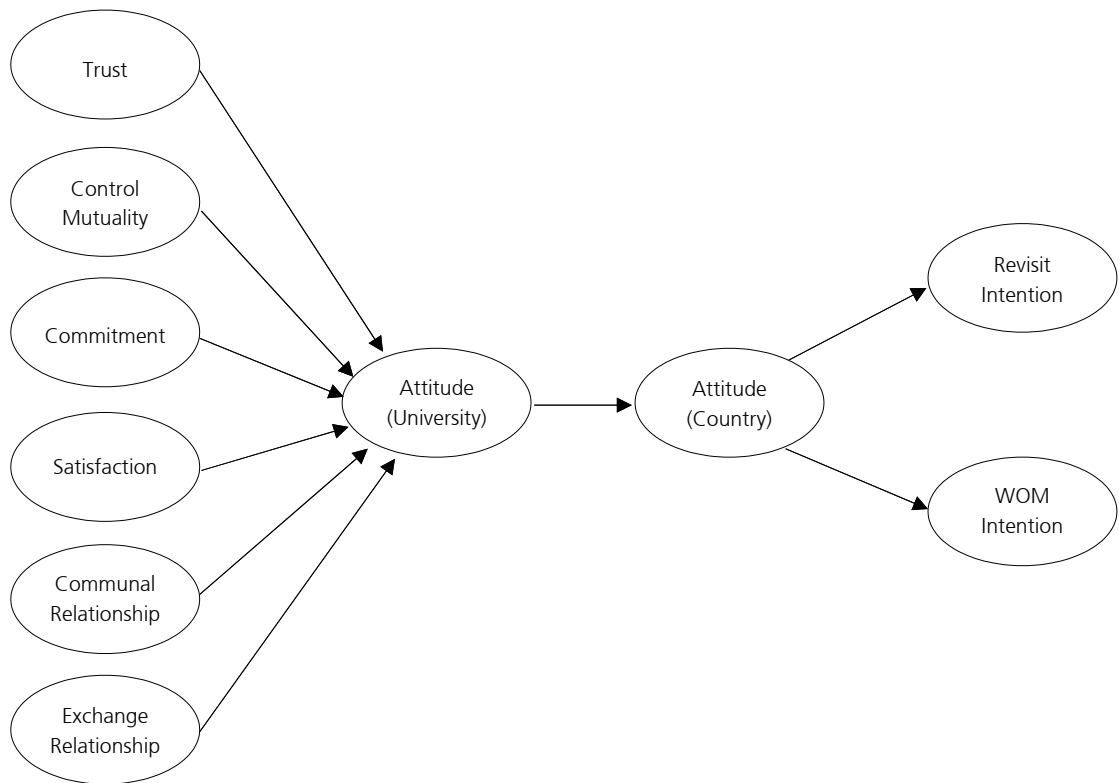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조사하였다. 모든 차원에 있어서 문항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적절하였다(신뢰: $\alpha = .915$; 상호통제성: $\alpha = .870$; 헌신: $\alpha = .848$; 만족: $\alpha = .922$; 공존적 관계성: $\alpha = .831$; 교환적 관계성: $\alpha = .832$)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하여 느끼는 태도는 심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분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소속 대학에 대하여 느끼는 태도를 세 문항에 걸쳐 7점 척도 상에 표기하였다(비호의적인-호의적인; 나쁜-좋은; 부정적인-긍정적인). 신뢰도 검증

결과,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alpha = .947$).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도 동일한 세 문항을 사용하여 7점 의미분별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의 문항 간 신뢰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충족시켰다($\alpha = .913$)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행동의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7점 의미분별척도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재방문 의도는 '나는 유학생할을 마친 이후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방문

하고 싶다는 진술문을 부여하고 세 문항에 걸쳐 응답자의 의견을 측정하였다(그렇지 않을 듯한-그렇듯한; 불가능한-가능한; 확률이 낮은-확률이 높은). 긍정적 구전 의도는 ‘나는 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을 부여하고 동일한 세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재방문 의도($\alpha = .923$)와 긍정적 구전 의도($\alpha = .851$) 모두 문항 간 신뢰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설문 절차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수집방법이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문항을 최대한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 신뢰도 및 타당도 제고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준비했으며, 응답자가 보다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된 설문지

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원을 수행한 상황에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설문 작성 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통계 분석 및 연구 변인 적합성 평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가정에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은 모형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Kim, Kim, & Hong, 2009).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왜도(skewness)는 2 이하, 첨도(kurtosis)는 4 이하가 되어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Hong, Malik, & Lee, 2003). 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Observed Variables

Latent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Trust	4.26	1.21
Control mutuality	3.75	1.10
Commitment	4.51	.97
Satisfaction	4.67	.95
Communal relationship	4.32	1.01
Exchange relationship	3.48	1.35
Attitude toward university	4.35	1.06
Attitude toward country	4.42	1.28
Revisit intention	4.94	1.23
Positive WOM intention	4.71	1.15

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은 정상분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방정식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Table 1은 각 변인들의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분석 결과이다.

한편,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6가지 하위 차원들과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와 국가에 대한 태도 간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국가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정한 변인들 간 인과 구조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평가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Kim, Kim, & Hong, 2009).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χ^2 값은 110.528이었고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을 검증해주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χ^2 값을 통한 모형평가는 표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Byrne, 1998; Cho, 2003).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 Trust									
2. Control mutuality	.323**								
3. Commitment	.458**	.496**							
4. Satisfaction	.388**	.182*	.496**						
5. Communal relationship	.438**	.239**	.433**	.373**					
6. Exchange relationship	.211*	.083	.254**	.290**	.130				
7. Attitude(university)	.544**	.113	.378**	.644**	.351**	.185*			
8. Attitude(country)	.255**	.210*	.161*	.181*	.214**	.151*	.630**		
9. Revisit intention	.176*	.232*	.048	.201*	.080	.056	.455**	.530**	
10. Positive WOM intention	.110	.095	.080	.265**	.189*	.053	.439**	.674**	.483**

Note. * $p < .05$; ** $p < .01$.

Table 3 Model Fit Test

	χ^2	GFI	TLI	NFI	CFI	RMSEA
Model	110.528	.935	.954	.955	.974	.045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GFI, TLI, NFI, CFI, 그리고 RMSEA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TLI, NFI, 그리고 CFI는 0(완벽한 부적합)에서 1(완벽한 적합)사이의 값을 갖고 .90 이상이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매우 좋은 적합도 그리고 .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Cho, 2003; Schumacker & Lomax, 1996).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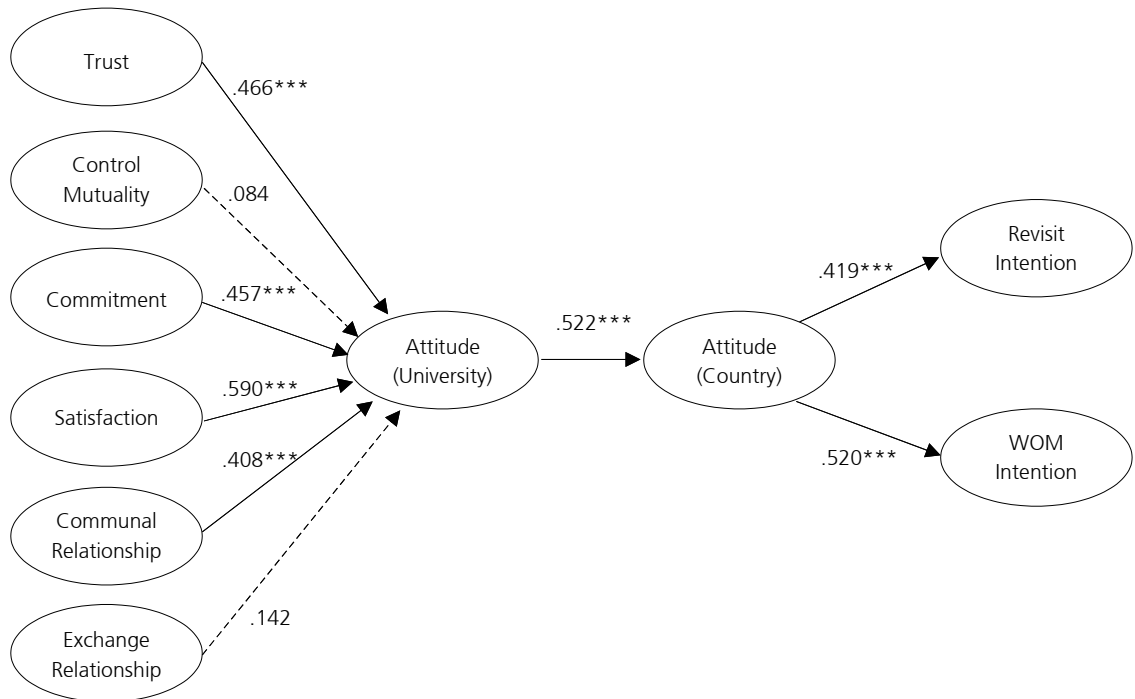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모형에서 가정적으로 연결하였던 각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우선 <연구 가설 1>을 통해 예측하였던 대학-유학생 관계성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느끼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던 여섯 가지 세부 차원들 가

운데, 신뢰($\beta = .466, p < .001$), 헌신($\beta = .457, p < .001$), 만족($\beta = .590, p < .001$), 그리고 공존적 관계($\beta = .408, p < .001$)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임이 판명되었다. 반면, 상호통제성($\beta = .084, p > .05$)과 교환적 관계($\beta = .142, p > .05$)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는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변인들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가설 2>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태도와 그들이 대한민국에 느끼는 태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속에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통해 판단하였을 때, 제안된 가설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태도는 그들이 유학을 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522, p < .001$).

<연구 가설 3>과 <연구 가설 4>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형성하고 있는 감정적 태도가 대한민국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재방문 의도, 그리고 본국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구전 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통계적 검증 결과, 두 연구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구 가설 3>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향후 대한민국을 다시 방



Note. *p<.05; **p<.01; ***p<.001.

Figure 2 Path Analyses and Regression Weights

문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419, p < .001$). 마찬가지로 <연구 가설 4>를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호의적인 태도는 그들이 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 나눌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20, p < .001$).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인식하는 신뢰, 헌신, 만족, 그리고 공존적 관계성의 차원이 높을수록, 그들은 소속 대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수록,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재방문 의도와 긍정적 구전 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Regression Weights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error	t
Trust→Attitude(university)	.520	.466	.054	9.269***
CM→Attitude(university)	.114	.084	.066	1.227
Commitment→Attitude(university)	.482	.457	.045	8.826***
Satisfaction→Attitude(university)	.605	.590	.048	10.238***
CR→Attitude(university)	.420	.408	.050	7.985***
ER→Attitude(university)	.145	.142	.053	1.881
Attitude(university)→Attitude(country)	.540	.522	.055	9.332***
Attitude(country)→Revisit intentions	.435	.419	.071	8.217***
Attitude(country)→WOM intentions	.535	.520	.048	9.392***

Note. *p<.05; **p<.01; ***p<.001.

논의

이론적 함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해외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Park, 2010). 한편, 국내 대학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 서비스의 국제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 모색 등이 대학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자 희망적인 미래 전략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대학 조직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국내 대학 교육의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Ha,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를 PR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개념화하고, 나아가 PR이론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기획, 실행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대학 교육이 국제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주요 공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Lee & Han, 20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는 국내 대학 PR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세부 공중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 모색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을 조직과 공중의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PR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기획되었던 국내 연구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학생의 범주가 국내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PR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공중 관계성 이론을 국내 대학 조직과 외국인 유학생

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변화하고 있는 국내 대학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유학생 관계를 PR 이론의 틀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과 소속 대학의 관계도 조직-공중 관계성의 이론적 틀 속에서 설명되고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속 대학과의 관계를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 만족, 공존적 관계성, 그리고 교환적 관계성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공중 관계성의 개념과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유학생 간 관계를 신뢰도 높고 타당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직-공중 관계성의 다양한 차원을 바탕으로 개념적, 조작적으로 정의된 대학-유학생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형성하는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를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이론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중인 대학에 좋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지각하는 조직-공중 관계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신뢰, 헌신, 만족, 공존적 관계성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성 차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뢰의 차원에서, 소속 대학이 진실성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발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느낄수록,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느끼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Cha, 2001). 헌신의 차원에서는 소속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헌신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들이 대학에 대해 느끼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만족의 차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낄수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Han, 2013). 마지막으로 공존적 관계성의 차원에서는 소속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대가없이 그들의 안녕을 위한다고 지각할 때 대학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경로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감안할 때 대학-유학생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관계성 차원은 만족이었으며 신뢰, 헌신, 공존적 관계성의 순으로 태도에 영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이론적 의의는 대학-유학생 관계를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계적 결과물을 공공외교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려 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대학-학생의 관계와 달리 대학-유학생의 관계는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외국 유학이라는 것이 교육 서비스를

근간으로 한 관계 형성을 통해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유학생 관계는 조직과 공중 차원에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Sung,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가정 하에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형성하는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고, 소속 대학에 형성하는 태도가 국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서 형성하는 태도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형성하는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수록,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론적으로 가정했던 대학-유학생 관계의 공공외교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소속 대학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바람직한 공공외교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반면,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유학을 왔더라도 소속 대학과의 관계 형성이 원만하

게 이뤄지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이 형성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는 국가 관련 행동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가설을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향후 대한민국을 재방문하겠다는 행동의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공외교는 직접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 공중들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방법이다(Lee, 2012).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 공중들의 재방문 의도나 긍정적 구전 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외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외교의 결과물이 대학-유학생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속 대학과의 관계가 대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국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호의적인 행동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시스템이 선진화된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공공외교의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조직-공중 관계성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긍정적인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바람직한 공공외교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무적 함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학의 국제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대학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내 대학들이 PR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고민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유학생의 관계를 조직-공중 관계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새로운 전략적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Lee, 2009).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듯, 대학-유학생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소속 대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배양된다. 그리고 PR의 측면에서 핵심 공중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자 행동의도, 행동 등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선행변인이라 할 수 있다(Kim & Sung, 2011). 결국, 소속 대학에 충성스러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대해 인지적인 차원에서 형성

하는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을 구축하는 세부 요인들 가운데 특히, 만족, 신뢰, 헌신, 공존적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그들이 소속 대학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혜택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기능하여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편, 소속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헌신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고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속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단순히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고, 그들의 복지향상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때 대학-유학생 관계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보다 호의적인 대학에 대한 태도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공공외교의 정책적 방향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두 번째 실무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평가도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시장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구조개혁, 대학 경쟁력 강화의 요구와 맞물려 대학 조직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다(Ha, 2008; Sung,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공공외교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시스템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자국의 문화, 가치관 등을 자연스럽게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Jo,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공공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대학-유학생 관계성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졌듯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체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공공외교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학의 경험이 고통스럽고 부정적이었을 때 유학생들은 해당 국가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g., Cho & Lee, 2010; Kim, 2012; Kim et al., 2010; Koo, 2010). 본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

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의도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행변인은 소속 대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계성이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만이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의도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Jang, Hong, & Moon, 2010). 이러한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대학 조직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경제적 효용만을 고려한 질 낮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PR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학-유학생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한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 교육의 국제화가 점차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직-공중 관계성 이론을 대학-유학생 PR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접목하고 공공외교라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그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PR의 가치 확산과 이론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학문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연구에 사용한 표본들의 대표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인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편의표집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외적타당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편의표집의 방법으로 연구표본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샘플링 프레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경로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표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변인들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방법론적인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변인들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학문적 관심을 경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유학생 관계를 핵심적인 외생변수로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대학-유학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유학생 관계를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로 상정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의 종속변인으로 제시했던 소속 대학에 대한 태도 외에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대학-유학생 관계가 소속 대학에 대해 생각하는 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유학생 관계가 대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에 대한 태도가 대학 관련 행동의도(예를 들면 유학 추천 의도, 관련 상품 구매 의도, 기부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대학-유학생 관계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적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i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173~22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n, B.-S. (2011). The study on public diplomacy professionalism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Focus on cultural centered approach.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5(4), 36-78.
- Argawal, J., & Malhotra, N. K. (2005). An integrated model of attitude and affect: Theoretical foundation and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483~493.
- Broom, G. M., Casey, S., & Ritchey, J. (2000). Concept and theory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 J. A. Ledingham, & S. D. Bruning (Eds.). *Public relations as relationship management: A rel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and practice of public relations* (pp. 3~2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uning, S. D., & Ledingham, J. A. (1999).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publics: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and evaluations of satisfac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6(1), 157~190.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a, Y.-R. (200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various communication media in university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5(2), 128~155.
- Cho, H. (200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IMPLIS & AMOS*. Seoul, Korea: Seok-Jung.
- Cho, Y.-W., & Lee, S.-S. (2010).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75~99.
- Choi, S.-H., & Kim, W.-H. (2007). The study on marketing public relations strategy application in colleg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 29~47.
- Cull, N. 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31-54.
- Eagly, A. H., & Chaiken, S. (1998).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269~322). New York, NY: McGraw-Hill.
-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55-77.
- Ha, J. H. (2008). A qualitative study of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473~496.
- Hayden, C. (2009). Applied public diplomacy: A marketing communications exchange program in Saudi Arab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4), 533~548.
- Huang, Y. H. (2001). OPRA: A cross-cultural,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3(1), 61~90.
- Hon, L. C., & Grunig, J. E. (1999). *Guidelines for measuring relationships in public relations*. Gainesville, FL: Institution for Public Relations.
- Hong, S., Malik, M. L.,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Jang, G.-K., Hong, S.-H., & Moon, S.-H. (2010). Chinese

- students' evaluations on the education service quality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Decision Science*, 18(1), 21~40.
- Jo, H.-Y. (2003). Locating Korean Wave(Han-Ryu) and the image of Korea: An ethnographic study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3(3), 209~234.
- Jun, S., & Park, J. (2000). Uncertainty reduction and satisfaction staying in the host country in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of business expatriates. *Korean Management Review*, 29(2), 197~212.
- Kang, M., & Yang, S.-U. (2010). Mediation effects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utcomes on public intentions for organizational suppor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2(4), 477~494.
- Ki, E.-J., & Hon, L. C. (2007). Testing the linkages among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9(1), 1~23.
- Kim, H. (2012). An analysis of Korean universities' educa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211~240.
- Kim, H. J., & Sung, M. (2011). The influence of donation experience, donation motivation, and perceived reputation on donation intention among university alumni.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5(4), 79~114.
- Kim, H.-K., Son, Y.-J., Lee, M.-R., Lim, K.-C., Chang, H.-K., Han, S.-J., Yang, N.-Y., Yoo, M.-R., & Ko, E.-J. (2010).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2), 143~153.
- Kim, H.-S., & Yang, S.-U. (2014). Advances in the theory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management and challenge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theory.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8(1), 476~515.
- Kim, J., & Lee, M.-K. (2011). A qualitative study on choice of study destination and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Korea: Focusing on narratives of post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61, 73~101.
- Kim, J.-H., Kim, M.-K., & Hong, S. (2009). *Writing an academic article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Korea: Communication Books.
- Kim, S.-N. (2007). A study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Chinese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10(1), 185~206.
- Kim, S.-Y., & Lee, J.-W. (2012).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37, 325~345.
- Kim, W. (2013). Korea's middle power public diplomacy.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16(1), 331~350.
- Kim, Y. (2009). Needs analysis for Chinese and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535~559.
- Koo, J. (2010). *An analysis of deteriorating factors on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itizens*. Seoul: KEDI.
-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8). *Student exchange and study abroad in Korea*. Retrieved from <http://www.mest.go.kr>.
- Kyung, S. Y., & Jang, S. M. (201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 399~421.
- Ledingham, J. A., & Bruning, S. D. (1998). Relationship management in public relations: Dimensions of an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Public Relations Review*, 24(1), 55~65.
- Lee, D. W. (2009). An exploration of PR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university fundraising in the United

- Stat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7(3), 85~110.
- Lee, H.-M., & Han, J.-S. (2013). A study on the impacts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on student satisfaction, intention to recommend and word-of-mouth: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 in universities of seoul regio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7(3), 55~76.
- Lee, H. M., & Jun, J. W. (2013). Explicating public diplomacy a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OP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PRs between the US embassy in Seoul and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5(5), 411~425.
- Lee, H.-S. (2012). Communication strategies with Chinese students for Korean public diplomacy: Centered on stages of u-curve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2), 451~477.
- Lee, S.-B. (2000). A cri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etical and alternative presupposi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4(2), 186~214.
- Lee, S.-B., & Kim, D.-W. (2009). Exploring influential factors on cultural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Speech and Communication*, 11, 47~79.
- L'Etang, J. (1996). Public relations as diplomacy. In J. L'Etang & M. Pieczka (Eds.), *Critical perspectives in public relations* (pp. 14-34). London, UK: International Thompson Business Press.
- Lim, C. H. (2009).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93~112.
- Lin, Q. L., & Kim, H. K. (2011). A prediction model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01~513.
- Malhotra, N. K. (2005). Attitude and affect: New frontiers of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477~482.
- Moon, H., & Rhee, Y.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and leadership styles of university presidents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intent for word of mouth communi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7(3), 111~137.
- Nisbet, E. C., Nisbet, M. C., Scheufele, D. A., & Shanahan, J. E. (2004). Public diplomacy, television news, and muslim opin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9(2), 11-37.
- Nye, J. 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 Park, E., Huang, B., & Jung, T. (2010). Adjustment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from China to Academic life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2), 205~223.
- Park, H.-S. (2010).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ttending a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3), 1~27.
- Sch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n, J. (2013). Enhancing cultural exchange, spreading Korean Wave, and public diplomacy,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1), 1~20.
- Signitzer, B. H., & Coombs, T. (1992). Public relations and public diplomacy: Conceptual convergence. *Public Relations Review*, 18, 137~147.
- Signitzer, B. H., & Wamser, C. (2006). Public diplomacy: A specific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function. In C. Botan & V. Hazleton (Eds.), *Public relations theory II* (pp. 435~46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ng, B.-W. (2013). Environmental change for public

- diplomacy and Korea's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3), 1~23.
- Sung, S.-I. (2013). An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Chinese students' educational satisfaction. *China and Chinese Studies*, 18, 73~97.
- Yi, S.-W. (2014). An empirical analysis on measurement and factors of soft power: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8(4), 29~54.
- Yun, Y.-M. (2012). A study of the new paradigm of public diplomacy: Focusing on the cooperative activities with the Ashena base and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PRT) in Afghanistan.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0(3), 253~278.

최초 투고일 2015년 05월 10일

논문 심사일 2015년 05월 23일

논문 수정일 2015년 0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13일

Understanding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OPR) Effect on Foreign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Hyung Min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based on the theoretical concept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OPR) and, further, helped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such relationships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A survey revealed that trust, commitment, satisfaction, and communal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foreign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university they were attending in Korea. Attitudes toward the university, in tur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foreign students' attitudes toward Korea. Finally, their attitudes toward Korea influenced their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Korea as wel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in view of university public relations strategies and public diplomacy.

KEYWORD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OPR), Public diplomacy, University Public Relations, Globalization, Attitude, Behavioral intention

* Corresponding Author: #B-832, Soojung Bldg.,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136-742, hmlee@sungshin.ac.kr, 82-2-920-7812.